

취업박람회도 '온라인으로'

전북중기청, 20일까지 '매력적인 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도내 9개 기관과 공동 주최 우수·유망 중기 65개사 참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비대면방식의 '전북 매력적인 일자리 온라인 박람회'를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구직자에게 다양한 채용정보와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도내 우수한 인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중기청과 도내 9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제이비잡앤컨설팅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내 우수·유망 중

공공기관 채용설명관, 1:1 맞춤형취업컨설팅, 취업지원 동영상콘텐츠, 구직참여 및 취업성공자 대상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해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미스매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홈페이지(open.coac.hjob.net)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후 참여 기업 채용정보를 확인해 희망기업에 입사지원서 등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직 공무원 430여 명을 대상으로 '2021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현장 강사 키운다

농진청, 내일까지 교육 실시 비대면 강의기법 교육 병행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직 공무원 430여 명을 대상으로 '2021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장 강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내·외 의견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정책, 작목별 핵심기술보급, 새해 영농계획수립 등 해마다 시·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실용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집합교육 대신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한다.

교육은 공통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눠 공통분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과 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강의기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전문분야는 식량 작물, 채소, 과수, 스마트팜, 농업경영·마케팅 등 농촌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10개 과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과장에서는 작목별 신기술, 신제품 현황, 현장 애로사항 극복 핵심 기술, 온라인 마케팅 등을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인, 귀농인 등이 지역 특성에 맞는 새해 영농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 초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있다.

올해는 전국 농업인과 귀농인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 소규모 집합교육 및 비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이번 현장 강사 양성 교육을 내일 있게 추진해 농업·농촌의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농신보, 비대면 신용보증 플랫폼 구축 추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영업점 방문없이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신용보증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 고객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서명을 이용해 간이신용조사 대상인 5,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에 대해 보증신청 및 기한연장 등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농신보는 국내·외 기금 업무의 디지털 전환 사례 등을 분석한 연구 동향을 통해 앞으로 대안으로 농신보의 특수성을 반영한 '비대면신용보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1년 이후 농신보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예담채 사과 산지 릴레이 판촉행사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역 농산물 출하 확대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이날 말까지 농협하나로마트 전주점에서 예담채 사과(무주, 진안) 릴레이 통합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로마트 전주점은 지난 2019년 8월 매장 리뉴얼 후 전북 원예농산물 브랜드 광고를 고객 눈에 잘 띄는 1층 매장에 설치해 전북농산물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전북 농산물의 취급비중을 올리기 위해 계절농산물 릴레이 판촉행사를 3월~4월(딸기, 감자), 5월~6월(수박), 7월(복숭아, 블루베리), 8월(포도)까지 판촉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10월~11월(사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농협은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아 전북농산물 통합 판촉행사를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추진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8회, 51억(2019년 15회, 29억)의 매출 성과를 올리는 등 지역농산물 취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전북 사과·배 특판전을 개최하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감장 시즌 전북농산물 통합 판촉행사(19일~22일)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도)까지 판촉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10월~11월(사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농협은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아 전북농산물 통합 판촉행사를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함께 추진해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8회, 51억(2019년 15회, 29억)의 매출 성과를 올리는 등 지역농산물 취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국 이마트 점포에서 전북 사과·배 특판전을 개최하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감장 시즌 전북농산물 통합 판촉행사(19일~22일)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무주지역 농협, 새농민회 회장 농가에 농장 간판 달아줘

NH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황석관)와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은 3일 새농민회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읍에 위치한 무주군 새농민회 권해생 회장 농가에 새농민농장 간판을 달아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새농민 수상자의 농장에 간판을 부착하여 수상자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산물 판매확대로도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편에는 새농민상 수상년월, 농장명, 주작목, 수상자명, 연락처를 기재해 제작됐고, 무주군 전체 회원 23명에 배포됐다. /무주=전문성 기자

완주 로컬푸드 '전국 최고'

농식품부 시행 시상식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지수 평가결과 'S등급' 우수 지자체 중 '유일'



완주군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2020 로컬푸드 지수 결과 발표 및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이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3일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2020 로컬푸드 지수 결과 발표 및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결과 발표는 농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해 결과를 발표한 수치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주관하고, 소비자시민모임이 시행했다.

전국 150개 시·군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 분야를 평가했으며,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 농가소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참여, 공공정책 등 먹거리 거버넌스가 측정 대상이었다.

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발표됐으며, S등급(1), A등급(2), B등급(10)의 우수 지자체로 13곳이 선정됐다. 이 중 완주군은 유일한 S등급으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 지

자체 포상으로 완주군은 로컬푸드 정책사업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됐다.

완주군은 지난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 최고 로컬푸드 직매장, 최다 로컬푸드 직매장, 최대매출의 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 최고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중·소·고령농, 가족농 중심의 로컬푸드 정책을 사회적 화두로 부상시켜, 로컬푸드 전국 확산에 주도했다. 또한, 세계협약기구인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에 가입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먹거리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FAO(국제식량농업기구)자료에도 완주군의 로컬푸드 정책이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박성일 군수는 "지역 푸드플랜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

을 주도하겠다"며 "더욱 체계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의 공급비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학교급식, 혁신도시 공공기관 식재료 공급, 서울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등으로 85억원 정도의 지역농산물을 공급했다.

또한, 12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용진농협, 봉동농협, 상관농협, 소양농협, 고산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로컬푸드 관계형 시장을 통한 누적 총 매출액이 4,000여억원 달하는 등 연 6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8일은 '전북 쌀 사는 날'

거시기장터서 할인 행사 진행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내 농특산물의 온라인 시장 자리매김을 위해 '거시기장터'에서 매일 8일을 '전북 쌀 사는 날'로 지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할인 행사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판매자의 가격할인과 거시기장터에서 제공하는 5천원 할인 쿠폰, 제휴 카드 할인 등이 더해져 우수 품질의 전북 쌀을 전국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

거시기장터는 올 7월 다양한 다비스(PC, 모바일, 타블렛 등) 환경에서도 손쉽게 제품을 구매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간편 로그인, SNS 공유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편 이후 3개월 만에 전년도 상반기 매출을 넘겼으며, 추석 프로모션 운영 시에는 하루 순 방문자가 1만 1,000여명 이상, 3만 3,000 페이지 뷰를 넘기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또한 거시기장터는 도내 생산·제조

291개사 2,600여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지자체 쇼핑몰 전국 최초로 농협은행·전북은행과 카드할인 제휴 업무협약을 맺어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생산자들의 매출 향상과 경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1번가와 '전북도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 감면과 할인 지원을 진행 중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약 15억원 가량 매출을 올렸고, 6천만 원 가량의 수수료 감면 혜택으로 임점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점차 다루고 있는 상품이 추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 규모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훈 원장은 "코로나 시대 온라인 판매 집중으로 거시기장터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기회로 전북 쌀 사는 날, 전북 상품 체험 100원 구매 행사, 전북 상품 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고강도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전국 어디에서든 전북 상품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북 상품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 지원책 모색

전북조달청, 지역 언론사 기자 초청 간담회 가져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 이하 전북조달청)은 3일 전북지역 언론사 기자를 초청해 '20년째 현재까지의 조달사업 실적과 창업·벤처기업 등 혁신조달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북조달청은 올해 10월까지의 조달사업 실적(1조4,115억원)으로 목표(1조7,472억원) 대비 80.8%,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한 106.9% 수준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자구매(물품·서비스)가 1조 1085억 원으로 목표였던 1조 3343억 원의 83.1%를 달성하며 1조 원 돌파했고, 시설공사 분야 또한 3030억 원의 집행실적을 올리며 전년 대비 101%의 실적을 달성했다.

한편, 전북조달청은 혁신조달기업 지원을 목표로 유관기관 업무협약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수급자 긴급대부로 효자역할 '톡톡'

국민연금 '실버론'... 2012년 시행 이후 7만여명 혜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12년 5월 국민연금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 시행된 이후 총 6만 8,088명이 3,279억 원(2020.9월말 현재)을 대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실버론'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이다. 대부금액은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 금액을 빌릴 수 있으며, 최고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이지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올해 4분기의 경우 연 1.12%이다. 대출 상환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거치 1~2년을 선택 시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신용등급이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하며, 대부용도별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다. /김윤상 기자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또는 경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이 실시한 '2019년 국민연금 실버론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중 93.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33.0%가 낮은 이자율, 9.6%가 무담보·무보증을 그 이유로 선택했다. 용도별 대부현황은 전·월세보증금이 40,985건(80.2%)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 25,979건(38.1%), 장제비 870건(1.3%), 재해복구비 254건(0.4%) 순으로 나타났다.

김용진 이사장은 "실버론은 일상생활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한 연금수급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척결 나서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남원지사 호남제주지역본부(이하 본부)는 최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인 본부 이윤순 부장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특별 단속한 결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3조 4,869억 원을 환수 조치했으나 수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813억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토론회자들은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갖추고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을 공동 단속해 나가야 하며,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